



협동조합마중물문화광장은 <Letter 상.상.상>을 매월 발행합니다.
'상상상'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etter 상.상.상>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깊은 소통의 광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 통권 3호

시민의 문화향연을 마중하는 마샘

안녕하세요. 2017년 한해를 돌아보니 한국사회, 마중물 그리고 저에게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해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마중물이 9년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며 마샘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얼마 전 마중물 파티('O, 마샘-오즈의 마법사, 마법의 샘을 파다')가 말해주듯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 도로시와 친구들(지혜가 없는 허수아비, 마음이 없는 양철 나무꾼, 용기가 없는 사자)은 결핍된 존재고, 그 결핍을 오즈의 마법사가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길을 헤쳐가면서 그들은 그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합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마법사였던 것입니다. 지난 파티를 통해 마샘이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니 마디마디 우리는 마법사를 만났고, 그 힘이 마법의 샘인 마샘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마샘을 만든 마법사는 뛰어난 한·두명이 아니라 도로시와 친구들같은 조합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법과 같은 일에 함께해주신 협동조합 마중물 문화광장 조합원님들 고맙습니다.

마샘이라는 공간이 열리면서 저에게는 마중물 교육센터장과 더불어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샘의 핵심인 문화광장을 활성화시키는 광장지기라는

발행처 |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발행인 | 김학성
편집간사 | 김지선
편집디자인 | 로로브레인 주식회사
발행일 | 2018년 1월 5일
주소 |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75 B104
전화 | 032 205 6648
팩스 | 032 232 4460
홈페이지 | www.masambooks.com
이메일 | waterforchange@hanmail.net



이현숙
마중물 문화광장 샘 문화기획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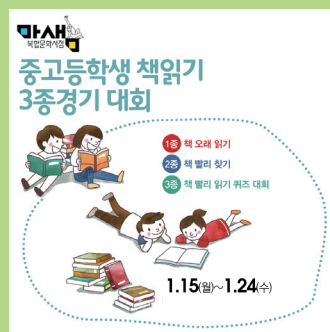
역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로리안 공감에서 이루어지는 제르미날 문화공연 프로그램, 갤러리 미래의 전시, 심미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개하는 역할입니다. 처음에 문화기획단장을 제안 받았을 때 아무런 문화예술계 연고가 없는 저로서는 난감했지만, 마중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9월이 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야할지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이 열리니 사람들이 찾아왔고, 공연과 전시, 강의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플로리안 공감 카페를 찾아오는 시민들 역시 문화향연의 주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번 운동주 시음회(시가 흐르는 음악회)는 80대 선배시민부터 초등학교 2학년의 후배시민까지, 아빠와 딸, 조카와 이모 등 다양한 연령대와 관계가 어우러진 문화향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낭독하고, 낭독을 통해 관계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함께하며, 공동체를 성장한다는 시음회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문소리와 함께하는 영화로 세상읽기’는 토론하는 동료들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배우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를 매개로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을 토론하는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광장의 모습임을 증명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편안히 들어나는 광장을 추구하는 마중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시민들이 주도한 토론의 향연이었습니다.

마שמ의 경험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마중물 광장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의 우려와 달리 광장을 즐기고 있고, 앞으로 이 광장이 어떻게 성장할지 호기심을 가지고 광장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광장지기의 역할을 하며 광장의 주인은 함께하는 시민인 ‘나’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 마שמ의 역할은 시민의 문화향연을 마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마שמ에서 멋진 문화향연을 만들어주신 ‘나’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중물 문화광장의 최고의 수혜자인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향연을 마중하는 마שמ이 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

마שמ에서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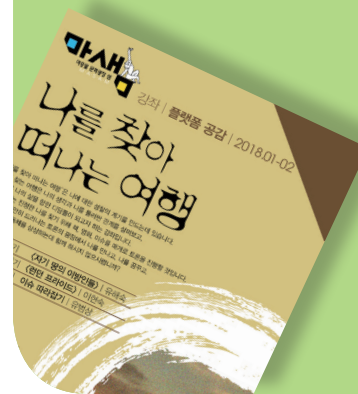


|목요광장|

매주 목요일 저녁,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을 제공합니다. 첫째주는 책, 둘째주는 영화, 셋째주는 정치이슈를 매개로 토론하고 공감하는 광장입니다.

01.04 책읽기	<자기 땅의 이방인들>	유해숙 교수
01.11 영화읽기	<런던 프라이드>	이현숙 교수
01.18 세상읽기	<이슈 따라잡기>	유범상 교수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7-9시
장소 | 플랫폼 마중
※ 오픈강좌로 신청 없이 무료 참여



이 달의
문화광장

|심미안|

마שמ에는 취미생활, 자기계발, 문화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나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는 눈' (심미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캘리그래피
일시 | 매주 수요일(오전반 10시-12시, 오후반 7시-9시)
장소 | 세미나실 일상방(마שמ)
회비 | 10만원(음료 1개 포함, 교재 및 재료비 별도)
문의 및 신청 | 032-423-0990, 010-3865-4974(문자전용)



|제르미날|

마שמ은 매주 제르미날('새싹이 돋는 달')의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반 고흐 음악회
01.06(토) 오후5시 | 플로리안 공감
보는 음악, 듣는 미술로 120여 점의 고흐 작품, 6가지의 주제, 8곡의 클래식 연주와 해설
참가비 | 1인 1만원 (음료1개 포함), 동반 어린이 1명 무료
한정된 장소 관계로 입금 순, 80분만 모집

만옥 작가와 함께하는 중년맛이 새인생
01.13(토) 오후4시 | 갤러리 미래
새해 중년을 맞는 사람들과 '나의 중년 맛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영화 '러빙 빈센트' 관람 및 토론회
01.20(토) 오후7시 | 플로리안 공감

제2회 시음회 '목마와 숙녀, 그리고 박인환'
01.27(토) 오후8시 | 플로리안 공감
작가 김다연의 '목마와 숙녀, 그리고 박인환'책을 토대로 박인환의 시를 낭독
참가비 | 도서+음료+입장권 15,000원 / 입장권(음료제외) 5,000원
낭독신청 | 010-3865-4974 <박인환 시 낭독 신청>이라는 제목을 달아 문자 신청. 1.15(월)까지 취합 후 안내

|갤러리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자 그림, 사진, 글, 역사자료 등을 전시합니다.

아줌마 왜 혼자 다녀요?
중년 사춘기 아줌마 만옥의 용감한 해외여행 도전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마שמ은 2018년 새해 중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아줌마를 응원합니다!
일시 | 2017.12.21 ~ 2018.1.17
장소 | 갤러리 미래(마שמ 갤러리)
*오픈전시로 신청 없이 무료 관람





유범상 교수의 BOOK REVIEW

평범하고 작은 자들의 집단 분노, 악의 평범성에 대한 대안이다

사유불능과 악의 평범성

나찌는 2차대전 기간에 수만명의 유대인을 집단학살했다. 이 홀로코스트의 핵심인물이 아이히만이다. 전후 예루살렘에서 아이히만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아이히만에게서 두 가지를 발견하기를 기대했다. 참회하는 그의 모습과 아이히만 속에 내재된 악마의 본성!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는 왜 본인이 여기 왔는지 모른다고 강변했다. 공무원이 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한 것, 그 자체는 상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참회의 눈물을 흘릴리 만무했다. 8개월의 재판과정에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악마적 본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무리 질문과 추궁을 하면서 그를 관찰해도 아이히만이 그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악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 현상을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설명은 이렇다. 아이히만은 악마의 본성을 숨긴 사악한 괴물이 아니라 진실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저 하라는대로 정부의 지시를 따랐던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아이히만을 보면서 악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평범한 사람들이 나찌를 방관, 묵인, 혹은 동의했기 때문에 악은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나찌라는 악마성은 사유불능의 평범한 사람들의 토양이 있었기에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부제는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이다. 즉 한나 아렌트는 이런 현상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악의 평범성과 그 속의 사람들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둘러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의 방조자 혹은 제조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 꿈들』은 전쟁에 대한 사유불능이 어떤 악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사지망생이었던 마이클 일병은 이라크의 지배자인 악당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이 정의수호의 행위라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아이들의 꿈을 앗아 갔고 자기 자신은 그 꿈들을 파괴하는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충격에 빠졌다. 전쟁이 평범한 사람들, 즉 이라크 시민들뿐만 아니라 참여군인인 자신의 삶을 파괴했고 증오라는 악의 씨앗을 뿌린 사실을 알았으니 말이다! 만약 국가가 전쟁을 선언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고 물었다면,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라는 전쟁의 의도와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정당화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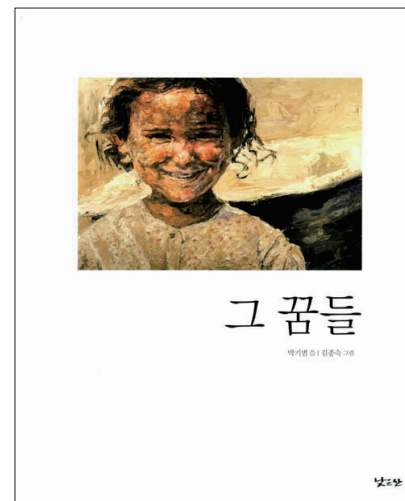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는 서울대 로스쿨에 다니는 성공한 장애인 김원영씨의 자전적 에세이다. 그는 경쟁력을 갖춰 성공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사람들이 그를 동료로, 평범한 인간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동정, 시혜, 자선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김원영씨는 이 책에서 한국사회가 ‘장애인도 제법인데’라든가 그를 롤모델로 삼아 다른 장애인을 마치 게으르거나 자립·자조 정신이 없는 것으로 자신을 이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처럼 우리는 장애인을 평범한 동료와 이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은 언제나 누구나 동정의 대상이거나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된다.

집단분노와 선의 평범성을 위한 상상

이상에서 보듯이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앗아가고 자신마저 죽이는 전쟁에 동원되고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한다. 이것은 이웃에게 모멸감을 주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급기야 공동체를 파괴한다.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악을 만든다면, 역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사유하기 시작할 때 선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악은 사악한 악마가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선도 특정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악과 선, 이 모든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 속하는 영역이다.

『희망과 욕망』이 제시한 선의 평범성의 실천사례를 들어 보자. 우리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능인’,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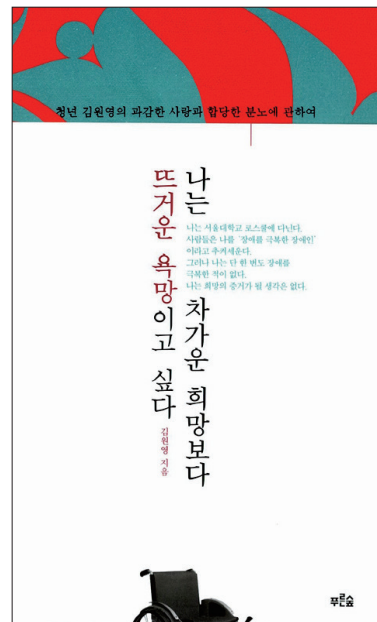


상인', '장애우' 등의 개념을 쓴다. 이능인 개념은 장애인을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서 손상으로 인한 불편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부를 때는 은연 중에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우리 친구'라는 함의를 갖고 있는 '장애우' 개념은 장애인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어법에 맞지도 않고 의도와는 달리 내심 장애인을 동정하는 태도일 수 있다. 『희망과 욕망』은 이 모든 개념들이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실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한다. 한편, 『그 꿈들』은 마지막 장면에서 정의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스미스 일병의 참회와 이를 받아들인 작은 자들의 화해를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증오의 뒷에서 작은 자들 스스로가 걸어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상에서 보듯이 신중한 용어의 사용과 평범한 사람들의 소통이라는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악의 평범성에 대항한다면 선의 평범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선의 평범성이 자라기 위해서는 한명의 작은 자의 분노가 있어야 한다. 이때 분노는 증오와 다르다.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는 말한다:

“우리는 때로 분노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분노를 증오와 착각한다. 증오는 타자에 대한 감정적인 혐오이고 복수심이다. 증오는 폭력만을 낳을 뿐 증오하는 주체의 상태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분노는 이와 다르다. 분노는 부정의에 대한 합당한 정의이고, 그 저항 속에서 우리자신의 욕망과 열정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분노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확장시킨다. 그래서 나는 분노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욕망과 잠재력을 추동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시작된 욕망은 우리의 상상력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현실이 된다. 우리는 분노하되 증오하지 않을 수 있다.”

나찌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활용해서 악의 평범성을 주조했다. 선의 평범성은 작은 자의 악의 평범성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한명의 분노에 그쳐서는 악의 평범성을 제거할 수 없다. 악의 평범성이 침묵하는 다수에서 자라듯, 선의 평범성은 작은 자의 분노에 대해 다른 작은 자들이 공감하면서 집단적인 분노로 나아갈 때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주위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둘러보고 악의 평범성에 대한 집단분노의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광장은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에 대한 염려와 희망을 담았기에 작은 자들의 축제의 장일 것이다.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떠나는 이 즐거운 광장으로의 소풍길이 우리 사회의 선의 평범성을 예비할 것이다.



조합원광장



유수정 조합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한 ‘마샘’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어색하고 남에 옷 입은 듯 낯설기만 한 제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달의 조합원으로 선정되어 인사말을 쓰게 된 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한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솔직히 처음 글을 써달라는 부탁의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살짝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했었지만, 차분히 무슨 글로 인사말을 쓸까 고민하는 동안 마중물과의 4년간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그동안 너무나도 가슴 벅찬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살아왔었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암울하고 참담하고, 시간이 지나도 힘든 삶은 여전할 것이라는 절망 속에서 현실을 살면서도 현실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나간 과거만 회상하면서 후회 속에서 살기만 했습니다. ‘사회복지?’, ‘대한민국 시민?’, ‘정책?’, ‘정치?’ 이런 단어는 제 머릿속에 ‘1’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뉴스보다는 드라마를 시사프로그램보다는 예능을 즐겨보며 소위 말하는 솔뚜껑운전 경력만 내세우며 살던 무지한 주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마중물을 만나게 되면서 온 몸을 덮고 있던 무지의 베일을 하나하나 벗게 되었고, 어느덧 드라마보다는 뉴스를, 예능프로그램보다는 다양한 시사프로그램을 눈여겨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비난과 비판의 차이,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새로운 가치관을 새워주었으며, 가족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주변의 수많은 약자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자각하는 그런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얻게 된 고민과 생각들을 실천해봐야겠다는 용기까지 얻게 되면서 이렇듯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의 ‘이달의 조합원’이라는 자리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마중물’과 ‘마샘’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자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곧 과거가 될 시간들입니다. 올 한해 기대했던 찬란한 미래와 원하던 꿈들이 생각했던 만큼 실현이 되지 못해 무척 아쉬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당신이 이곳 마중물과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복합문화시설 ‘마샘’에 인연을 맺고 있는 한 당신과 제가 꿈꾸는 미래는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여기 ‘마샘’과 인연을 맺지 못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샘솟는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과 함께 2018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도 전 서로의 차이가 편안히 드러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을 이곳 ‘마샘’에서 꿈꾸어 봅니다.

조 합 소 식

마샘, OBS 방송에 나온다!

경인방송(OBS)의 '책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특색있는 서점으로 마샘이 소개되었습니다(12월 4일). 마중물의 정신과 의미를 담아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점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 전시, 강의와 토론 등이 가능한 광장으로 마샘의 특징과 의미가 잘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마샘 안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이러한 기억을 추억하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라는 이재필 마샘 대표님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시 찾아가는 공정무역학교 시민강연



인천시 찾아가는 공정무역학교 시민강연으로 12월 12일(화)에 '처음 만나는 공정무역', 12월 18일(월)에 '공정여행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글로벌기업이 단일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함으로써 벌어진 일들로 소규모 농장의 도시 빈민화, 기후문제 등이 있으며, 환경파괴, 빈곤, 난민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행자가 사용하는 경비를 현지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공정여행'에 대한 강의를 통해 거대 여행 산업보다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여행도 소개되었습니다.

목요광장 세상읽기 '여배우는 오늘도' 배우 문소리 참여!

12월 목요광장(12월 21일)의 '영화읽기'에서는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로 광장이 열렸고, 이 영화의 감독이자 배우인 문소리씨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마샘의 플로리안 공감에는 100여명의 토론하는 동료들이 함께 했습니다. 배우가 아닌 여배우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회, 그리고 '외모'(단순히 외모를 넘어 학력, 스펙, 집, 자동차 등 겉으로 보여지는 것)가 능력이고 상품이 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한국사회를 돌아보는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이를 먹는 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듯이, 예술도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소리 감독의 나뭇의 소신과 가치관을 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보석보다 찬란한' 김선경 조합원 추모식



지난 10월 9일,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의 조합원이자 안양교육청의 교육복지사로 마중물과 함께 해온 베타인 김선경 선생님께서 고인이 되었습니다. 마중물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함께 공부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안고 일상에서 실천하셨던 동료였습니다. 플랫폼마중에서는 12월 22일, 김선경 선생님의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고인을 아끼고 사랑했던 많은 동료들이 함께 모여 '보석보다 찬란한' 김선경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고, 추억을 나누며 고인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은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에 함께 할 조합원을 기다립니다

| 조합원 가입 방법 |

아래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바랍니다.

- 이메일 | waterforchange@hanmail.net
- 팩스 | 032-232-6640
- 문자 | 010-6744-6648
- 문의 | 032-205-6648 (김지선 사무국장)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조합원 가입신청서

본인은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의 목적과 취지에 동참하고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가입유형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input type="checkbox"/> 준조합원 ※ 해당란에 ✓ 표시해 주세요
출자좌수	()구좌 ※ 1구좌 이상 신청가능

조합원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1회의 출자로 회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합원의 1구좌는 100만원이며, 준조합원의 1구좌는 10만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8801-04-215706(예금주 :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201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이사장 귀하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협동조합 운영과 이용에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준조합원은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협동조합 이용 시 아래와 같이 혜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서적 할인	문구, 음료, 공연, 강연 할인	조합운영 의결권	적립
조합원	10%	20%	○	1%
준조합원		15%	×	